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5년 10월 7일 · 제326호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선임연구위원

Contents

| 글로벌물류이슈 |

1. 멘로 로지스틱스의 세계화 전략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독일계 유로게이트, 브라질 복합운송업체 투자
2. 신선식품 소비량 및 해상 운송량 증가의 밝은 미래
3. 머스크,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콜드체인 서비스 준비
4. UPS, 최초의 의료장비전용 보급창고 설립

| 물류시장동향 |

1. 이스라엘, 자국 항만 확충에 20억 달러 투자
2.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16년까지 총 16개 공용 부두 운영 예정

| 공지사항 |

1. 중소 · 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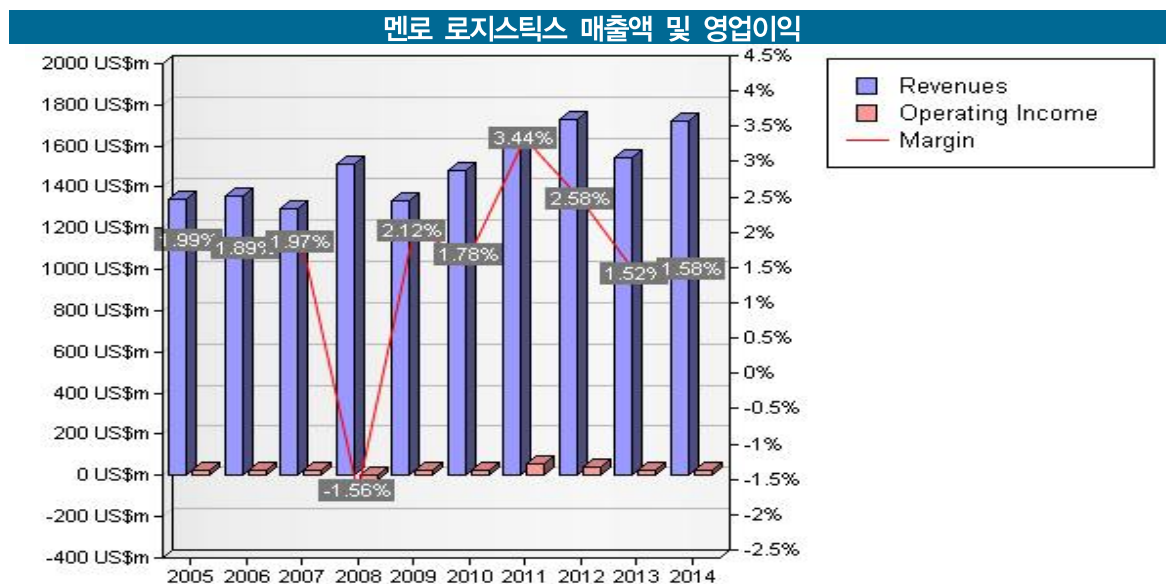


글로벌 물류이슈

멘로 로지스틱스의 세계화 전략

세계 40위권의 3PL 물류기업

- 멘로 로지스틱스는 콘웨이(Con-way)의 자회사로 세계 40위권의 미국 3PL 기업이며, 계약물류, 공급체인 설계 및 자문, 복합운송 주선 등을 영위하고 있음
 - 콘웨이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열사로는 Con-Way Freight, Con-Way Truckload, Road Systems 등이 있음
- 2014년 매출액은 17억 달러로 전년대비 11.51%, 영업이익은 2,700만 달러로 15.6% 증가하였으나, 2012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영업이익율은 2014년 1.58%를 기록하였으며 꾸준히 영업이익자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2008년에는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음



- 북미 지역에만 70여개의 물류창고가 있으며, 북미 지역 외에 유럽, 라틴 아메리카,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등으로 권역을 구분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벨기에, 체코, 독일, 핀란드, 아일랜드 및 영국 등에서 17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멕시코, 페루 및 칠레에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대만에 진출하였고, 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및 호주에 진출해 있음

유럽 네트워크



라틴아메리카 네트워크



동아시아 네트워크



남아시아 네트워크



자료: 멘로 로지스틱스 홈페이지

- 사업범위는 자동차, 콜드체인, 계약물류, 전자상거래, 복합운송, 비즈니스 프로세스 지원, 회수물류까지 다양함
 - 밥캣(Bobcat), 볼보 및 GM 등에 자동차 물류서비스를 북미, 유럽 및 아시아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에서는 자동차물류가 주요 사업임
 - 남아시아에서 알콜 음료 중심의 콜드체인 물류를 담당해오고 있으며, 2014년 태국의 스타벅스 물류를 담당하면서 동남아의 식품물류에 진출하였음
 - 계약물류는 전통적인 사업영역이며, 전자상거래 과정의 주문, 보관, 포장, 재고관리 및 배송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오리지널 스와트(Original S.W.A.T.), 푸마 등에 제공하고 있음



XPO 로지스틱스의 콘웨이 합병

- 2015년 9월, 세계 30위권의 3PL 기업인 XPO 로지스틱스와 멘로 로지스틱스의 모회사인 콘웨이가 30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에 합의하였음
 - 2014년 매출액 24억 달러의 XPO 로지스틱스가 같은 해 매출액 58억 달러 규모의 기업이었던 콘웨이를 인수하며, 인수절차는 12개월 내로 완료될 예정임
 - 이 계약을 통해 XPO 로지스틱스는 2위의 LTL(less-than-truckload) 사업자로 부상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공급체인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 인수 후 콘웨이 자회사들의 브랜드는 XPO 로지스틱스로 변경될 예정임
- XPO 로지스틱스의 브래들리 제이콥스(Bradley Jacobs) 회장은 인수합병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하이테크, 헬스케어 및 소매업 등 계약물류시장의 블루칩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멘로 로지스틱스” 라고 자평함
 - XPO 로지스틱스는 항공, 소매, 통신, 농업, 화학 및 식음료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 이번 계약으로 멘로 로지스틱스가 서비스 범위 및 네트워크가 강점인 초대형 물류기업과 소규모의 저비용 물류기업 사이에서 정체되고 있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XPO 로지스틱스는 합병 완료 시 매출액은 150억 달러, EBITDA는 합병 전의 2배 수준인 11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 2014년 기준, 3PL 기업 순위에서 일본통운이 매출액 약 179억 달러로 세계 4위, C.H. 로빈슨이 135억 달러로 세계 5위를 차지하였음
- 멘로 로지스틱스의 세계화 전략이 XPO 로지스틱스 합병 이후 어떠한 형태로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됨

전략 1. 중국 시장 진출 강화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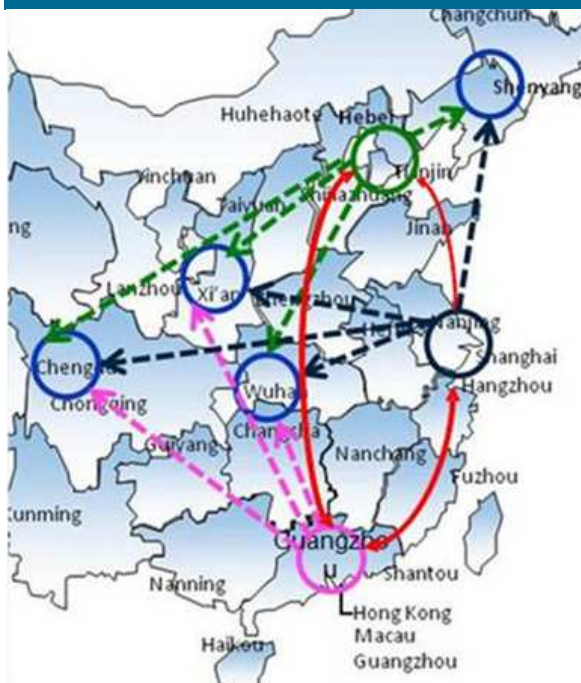
- 중국 시장은 북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높은 매출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멘로의 주요 시장으로, 멘로의 영역 확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1962년 멘로 홍콩 사무실 설립을 시작으로 1999년 와이가오차오(Waigaoqiao) 보세구에 상해지사를 설립했음
- 주요 고객으로는 B&C, Eaton, GM, Mary Kay, New Era, P&G, 파워웨이브, Shanxi Coking 그룹, 유니레버 등이 있음

1) 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09, 2012.4.24.



-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사업 성격별로 시장을 구분하여 공략하고 있음
 - 볼륨/네트워크 확대 부문(FMCG(소비자 용품), 화학 & 산업), 고부가가치/성장 부문(하이테크, 자동차 부품, 공장 운영 및 4PL/LLP, 운송망 컨설팅), 직접 판매(온라인 도매), 보세창고(지역별 물류허브)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멘로는 비자산(non-asset) 물류기업으로, 중국내 지역별 허브를 통해 매달 9만여 건 이상의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운송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트럭 12,000대 이상을 투입하여 중국 전역에 걸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운송 네트워크는 상해 사무소를 비롯하여 광저우, 청두, 시안, 우한 지점 등이 운영되고 있음
 - 각 지점은 110개 이상의 주요 도시의 집하 및 배송 서비스를 총괄하며 매년 100만 톤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음
- 멘로는 중국내 19개의 분류 센터와 3개의 보세 창고, 45개의 지역보관 창고 등 총 18만 600㎡ 규모의 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일 2만 여 건의 주문을 처리하고 있음

운송관리 네트워크 허브 및 주요 운송 흐름



자료 : Armstrong & Associates, 물류신문

창고 관리 네트워크



자료 : Armstrong & Associates, 물류신문

전략 2. M&A를 통한 글로벌화



- 멘로 로지스틱스의 기업 인수는 중국 시장 내 네트워크 확장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 2007년 중국내 부가가치 창고 서비스에 특화된 비자산 운송 물류기업인 치크 로지스틱스(Chic Logistics)사를 인수함으로써, 중국 공급망 관리 네트워크 확장을 시작했음
 - 치크 로지스틱스사는 인수 시기인 2007년 기준 중국내 78개 도시에 물류센터, 창고, 대리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6년 기준 5,52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음
 - 멘로의 치크 로지스틱스사 인수는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임
- 또한 동남아시아 시장 확장을 목표로 한 인수도 이루어지고 있음
 - 2008년 멘로는 동남아 지역 물류가 특화된 코가르 로지스틱스(Cougar Logistics)를 인수했음
 - 코가르 로지스틱스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에 운송, 창고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인수 시기인 2007년 기준 2,3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음
 - 2014년 싱가포르를 남아시아 물류 허브로 선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린(lean)²⁾ 방식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현재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호주 등에 물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으로의 진출도 고려하고 있음

멘로 로지스틱스의 기업인수 현황				
	대상기업	연도	업종	국가
1	Cougar Logistics	2008	계약물류	싱가포르
2	Chic Logistics	2008	계약물류	중국
3	Chic Logistics	2007	육상운송	중국

자료 : www.gscintell.com

전략 3. 얼라이언스

- 멘로 로지스틱스는 글로벌 물류 서비스 역량 강화 및 해외 사업 매출 비중 증대를 목적으로 다양한 기업들과 얼라이언스를 형성하고 있음
- 현재 멘로 로지스틱스가 얼라이언스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은 4개 기업임
 - Blue Coat Systems사는 IT 보안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전 세계 해외 유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010년 얼라이언스를 체결했음
 - JF Hillebrand사는 독일 마인츠(Mainz)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음료 취급에 강점을 갖고 있는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 2012년 얼라이언스를 체결하고, JF Hillebrand사의 싱가포르 물류창고를

2) 린의 개념은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시작되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개선활동중 하나이며 과다생산, 불필요한 공정단계, 불필요한 이동, 대기, 불량품 등과 같이 불필요한 요소와 낭비요소 등을 제거하는 것임



활용하여 동남아 지역 물동량의 일부를 처리하고 있음

- Mapletree Logistics Trust사는 싱가포르 기반의 물류 부동산 투자신탁으로 2013년 얼라이언스를 체결하였으며, Mapletree Logistics Trust사가 소유하고 있는 물류 시설을 장기적으로 임대·사용하고 있음
- Prologis사는 하이테크 분야에 특화된 기업으로 2010년 얼라이언스를 체결하고, 미국 테네시(Tennessee)주 멤피스(Memphis) 지역에 Prologis사가 소유하고 있는 1만 8,000m² 규모의 물류 시설을 임대·사용하고 있음

멘로 로지스틱스의 얼라이언스 파트너	
Blue Coat Systems, Inc.	JF Hillebrand
Mapletree Logistics Trust	Prologis Inc.

자료 : www.gscintell.com

전략 4. 린(lean) 방식 도입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 멘로는 고객의 니즈 충족 및 신뢰, 운영의 지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물류를 비롯한 기업 운영 전 분야에 린 방식 도입하고 있음
- 운송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관리
 - 네트워크의 안정화와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를 통해 전체 물류비를 절감하고 있음
 - 아웃소싱 및 조달, 주문 및 출하관리, 네트워크 관리 및 최적화, 탄소배출량 감소 등 물류 환경 변화와 고객니즈에 맞추어 각 분야별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부가가치 창출형 창고 운영 시스템 구축
 - 창고 설계 및 운영에 린 방식을 도입하여 재고량, 재고 처리 비용, 폐기물, 작업 시간 등의 최소화를 실현하고, 안전성, 정시성, 정확성,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부가가치 창고 운영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음
- 4PL 솔루션 구축을 통한 공급망 효율성 향상
 - 고객들에게 린 방식을 활용한 지속적인 공급망 개선을 통해 리스크 감소,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물류 솔루션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음
- 멘로는 린운영 방식에 따른 물류 효율성의 극대화를 통해 글로벌 물류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전 세계를 5개의 지역(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북아시아, 남아시아)으로 구분하고, 중국시장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북미, 유럽 지역에서의 사업 영역확장을 위해 신규 물류센터를 개장하고 있음
 - 전 세계 200여 개 이상의 사무소와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부가가치 창출형 창고운영을 중심으로



진출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멘로 로지스틱스의 세계화 전략은 운영효율성 향상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별 맞춤형 특화전략, M&A, 얼라이언스를 통한 네트워크 확충 및 다양한 지역으로의 진출 확장을 위해 유기적인 기반 구축을 통한 성장 사례로 평가됨
 - 진출 지역에서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노하우 축적과 기반 확보를 통해 점진적으로 그 활용 영역을 넓혀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시 참고해 보아야할 사례로 평가됨

자료 : www.menlologistics.com, www.gscintell.com, 2015.10.2.

송주미 전문연구원
051-797-4773, jmsong@kmi.re.kr

손보라 연구원
051-797-4781, bora62@kmi.re.kr



물류시장동향

독일계 유로게이트, 브라질 복합운송업체 투자

- 독일 최대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인 유로게이트(Eurogate)가 최근 브라질 산투스항에 기반을 둔 브라질의 복합운송회사 콘트레일 로지스티카의 지분을 인수하며 브라질 진출에 나섰다
 - － 유로게이트는 지난 1999년 독일계 Eurokai와 BLG logistics가 전략적 동맹을 맺으며 탄생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로, 창립과 더불어 독일 최대의 터미널 운영사로 떠오른 바 있음
 - － 유로게이트는 금번 투자를 통해 콘트레일 로지스티카의 지분 16.67% 인수했으나 향후에도 투자를 계속해 2018년 6월까지 현재 수준의 2배에 이르는 33.34%로 지분율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힘

브라질 산투스항 전경



자료 : www.lloydslist.com

산투스항 위치와 연계 교통망



자료 : map.google.com

- 한편 브라질 산투스항은 브라질 남부 상 파울루 주에 있는 브라질 최대 항만으로, 역시 브라질 최대 도시인 상파울루와는 도로·철도로 연결되어 있음
 - － 산투스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수출항 가운데 하나이자, 브라질의 남부 내륙 도시들로 들어가는 관문항으로서 연간 화물 처리량은 3백60만 TEU에 이릅니다
 - － 상 파울루는 산투스항과 내륙 쪽으로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브라질 남부 교통망은 상 파울루를 기점으로 캄피나스(서북 방향) 및 사호 호세 도스 캄포스(Sao Jose dos Campos, 동북 방향)로 뻗어나가, 전체적으로는 산투스 항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진 'T'자 형 삼각 교통망의 허브 구실을 하고 있음
- 콘트레일 로지스티카는 산투스-상 파울루-캄피나스 및 사호 호세 도스 캄포스 교통 회랑에서 내륙 터미널을 포함한 복합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브라질은 현재 상 파울루를 중심으로 14개 도시를 연결하는 대규모 복합 교통운송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산투스-상 파울루-캄피나스 및 사호 호세 도스 캄포스 교통 회랑은 전체 사업의 일부라 할 수 있음
- 브라질 당국은 민자 62억5천만 달러, 공공 자금 30억 달러 등 총 92억5천만 달러를 투자해 이 지역에서 향후 특급열차 노선 4개를 신설할 계획임
- 유로게이트는 과거 이탈리아에서 지분 투자 등 유사한 방식으로 복합 교통망 확장사업을 성공시킨 바 있어, 이 회사의 콘트레일 로지스틱스 투자 결정은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 유로게이트측 또한 이 지역에서 고객사(해운사)들이 정기선 항로의 일부로서 산투스항에 기항토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투스 항을 배후지와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연결시킬 필요가 있으며, 화물운송 수요의 창출과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하고 있음

자료 : www.lloydlist.com, 2015.10.3.

박성준 전문연구원
051-797-6994, sjpark@kmi.re.kr



신선식품 소비량 및 해상 운송량 증가의 밝은 미래

- 신선물류 전문가들은 신흥시장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냉장화물의 해상 운송량 증가 속도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세계 주요 농산물 금융회사인 네덜란드의 Rabobank사의 냉장과 농업 전문가들은 9월 22일 벨기에 Burges에서 열린 신선물류국제회의(Cool Logistics Global Conference)에서 신선식품의 연간 소비량은 향후 5년간 계속 증가할 것이라 발표함
- Rabobank 전문가들은 신선식품의 소비량 증가율은 중동과 아프리카, 태평양 지역, 동유럽의 순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최근 5년간(2010~2015년) 신선식품의 소비량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경우 연평균 3.5%, 태평양 지역의 경우 연평균 3%, 동유럽의 경우 연평균 2% 증가했음
 - Rabobank사의 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 신선식품 소비량 증가세가 1%포인트 더 높아져 중동과 아프리카는 연평균 4.5%, 태평양지역은 4%, 동유럽은 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Rabobank사의 식품 및 농업 공급사슬 애널리스트 Paul Bosch씨는 신선 식품의 미래는 아주 밝으며, 특히 어류와 해산물 수요는 엄청나다고 밝힘
 - 최근 냉장 영역에서의 운송 능력 부족 현상은 어류 및 해산물의 높은 수요로 인해 발생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선식품 수요 급성장 추세는, 가처분 소득 증가와 함께 중산층 인구의 빠른 확장, 기호의 변화, 지속적인 도시화, 정부와 비정부 기구의 식품 손실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 글로벌 신선물류 시장의 수요 예측에 따르면 특히 중국 시장의 미래는 더욱 밝음
 - 시장조사 회사인 Markets and Markets사는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신선화물 수요 증가 덕분에 2014년과 2019년 사이 세계 냉장 부분 화물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15.6%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은 신선물류에 대해 커다란 관심이 있으며, 중국인들은 신선식품에 대해 기꺼이 값을 지불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Bosch씨가 언급함
- 최근 북유럽에서 해상으로 수출되는 물품 중에 가장 빨리 성장하는 상품은 양파라고 네덜란드 공급자인 JWK Wiskerke Onions사의 영업 관리자인 Chayenne Wiskerke씨가 밝힘
 - 인도, 세네갈 등 양파 수입국은 기후변화와 물 부족으로 인해 양파 생산이 어려워져 유럽 산 양파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다고 Wiskerke씨는 언급함
 - 전 세계 가장 큰 양파 수출업체인 JWK Wiskerke Onions사는 올해 단독으로 40ft 냉장 컨테이너 기준 5,500 FEU의 해상 물동량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두 자리 수의 판매 및 물



량이 증가된 수치임

- 유럽에서 냉장 화물 수입 측면에서 보면 항만 내의 제품 및 고객의 요구가 다변화됨에 따라 특별한 처리 및 저장, 분배 시설에 대한 사업 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벨기에 Zeebrugge항 등 유럽의 일부 항만들은 최근 컨테이너 물동량이 줄어들자 있어 벌크 화물 취급 비중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
 - Zeebrugge항은 더러운 벌크 화물 취급으로 인한 오염과 유해 가스 배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클린 항만의 개념 적용을 통해 신선 제품을 수입하는 고객사들의 수요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자료 : www.joc.com, 2015.9.29.

이연경 전문연구원
051-797-4682, eklee@kmi.re.kr



머스크,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콜드체인 서비스 준비

- 머스크는 미국계 통신사 AT&T와 연계해 실시간 온도추적이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임
 - 최근 들어 AT&T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정기선사인 머스크 그룹의 29만개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네트워크로 연결할 계획임
 - 머스크는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 세계에서 운송중인 컨테이너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지정된 온도를 벗어나지 않게 제어할 계획임
 -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본 기술은 원거리에서 레스토랑 냉장고나, 병원에서 약품의 온도를 체크하는 기술과 유사한데 큰 핸드폰(컨테이너)이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된 것과 같음
 - 만약 화물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도가 변동되고 있으면, 관리자는 경고 메시지를 받게 되고, 지속적으로 문제 발생 시 반복적으로 해당 화물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받게 됨
 - 또한, 경고 메시지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문서로 기록되며 이러한 기록은 화물 검사시에 활용될 수 있음
 - 하지만 병원과 레스토랑의 경우 온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접근해서 수리가 가능하지만 컨테이너의 경우 운항중인 배에 높게 쌓여있어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기술은 화물이 온도 범위를 벗어나서 손상된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주로 쓰일 전망임
- 머스크는 통신서비스에 노하우를 가진 AT&T를 통해 기존 핸드폰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새로운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원격컨테이너장비(RCD : remote container device)는 가입자 식별모듈카드(SIM card)와, AT&T의 3G 네트워크를 활용할 계획이며, 선박의 환경을 고려해 높은 온도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할 예정임
 - 또한 위치추적을 위한 GPS, 근거리 통신을 위해 무선 LAN과 유사하지만 전력은 낮은 ZigBee 라디오 기술, 다양한 접속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제어장치 등이 사용될 계획임
 -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온도확인 및 위치 추적도 지원 가능할 전망임
 -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들은 항천항해 중 화물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GPS 기술을 활용하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장치가 설치되면, 화물 담당자는 컨테이너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대신,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컨테이너들의 온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음

자료 : fortune.com, 2015.10.2.

이홍원 연구원
051-797-4783, hongwon@kmi.re.kr



UPS, 최초의 의료장비전용 보급창고 설립

- 글로벌 물류기업 UPS사는 의료 물류의 확정이라는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최초의 의료장비 전용 보급창고를 미국 뉴저지(New Jersey)에 설립함
 - UPS사는 뉴저지에 설립되는 최초의 의료장비 전용 보급창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물류서비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힘
 - 뉴저지 보급창고는 복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전문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했으며, 가압증기멸균기(autoclave), 의료장비의 점검(instrument inspection), 수술 장비(Surgical set) 보급 등을 포함한 의료장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힘
- 208,000ft² 규모의 본 의료 전문 보급창고 허브는 UPS사의 또 다른 물류허브인 필라델피아 공항 인근에 설립됨
 - 따라서 상기 의료전문 보급창고 허브는 현장화물보관소(Field Stocking Location)³⁾를 포함하는 여타 일반 물류서비스와 연계하여 종단 간(End-to-end)방식의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하여 재고물품의 가시성(Inventory visibility) 향상과 SCM 측면의 통제력을 제고한다고 밝힘
- UPS사측 다비드 퀸틸로(David Quintilio) 의료물류부문(Healthcare Logistics) 부사장은 수술 장비의 멸균(Decontaminate), 재포장(Repackaging), 보충(Replenishment) 등의 서비스와 함께 고객의 긴급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의료관련 물류시장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밝힘
 - 또한 UPS사가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창고, 유통 및 부가가치 서비스의 품질이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UPS사 글로벌 전략 파트의 존 메나(John Menna) 부사장은 앞으로 의료관련 제조업자들의 비용을 감소시키며 끊임없는 물류와 의료물류 분야의 증가하는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힘

자료 : www.finance.yahoo.com, 2015.9.30.

고재성 연구원
051-797-4776, jsko@kmi.re.kr

3) 현장화물보관소(Field Stocking Location) :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물품 혹은 서비스의 배송 및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UPS사에서 전략적으로 특별히 지정하는 센터.



물류정책 · 사업동향

이스라엘, 자국 항만 확충에 20억 달러 투자

- 이스라엘은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할리파(Halifa) 및 아시도드(Ashdod)등 자국 주요 항만에 대형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할 예정임
 - 두 컨테이너 터미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선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설될 예정임
 - 완공 시 이스라엘의 컨테이너 무역을 5%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 할리파 항만은 이스라엘의 주요 국제항만 중 규모가 가장 큰 항만으로 연간 2,6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음
- 시스템 및 장비 투자 등을 제외한 터미널 건설에만 11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임
- 이번 항만 확장 공사는 2021년 완료될 예정임
 - 바다 매립을 통해 공사에 필요한 80 헥타르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임

자료 : www.joc.com, 2015.9.30.

신수용 전문 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16년까지 총 16개 공용부두 운영 예정

- 2016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총 16개 공용부두가 운영될 계획임
 - 2014년에는 4개 부두 운영, 2015년에는 8개 부두가 이용되고 있음
- 이 공용부두는 어떤 선박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저렴한 이용비용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승객의 하선 비용이 320루블(약 6000원)로 저렴한 편임
 - 올해 7월부터는 공용부두 접안비용을 모바일을 통해 문자결제가 가능하도록 함
-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해상교통 발전과 이용효과의 확대를 위해 러시아 교통위원회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부두” 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음
 - 이 프로젝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내 부두 망을 구축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임대를 하여 부두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해상교통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주목적임

자료 : www.portnews.ru, 2015.9.30.

이하림 연구원
051-797-4758, harimy@kmi.re.kr



중소 · 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중소 · 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과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 중견기업
-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 ※ 중소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기업

● 대상사업

- 해외 물류시설(물류단지 · 센터 · 창고, 항만 · 복합물류 터미널 등)의 개발투자운영 사업
-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 · 지사 · 사무소 설립 사업
- 상기 관련 M&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지원내용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 · 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
- 현지 경제 · 무역 · 인프라 · 물동량 현황, 투자 관련 법 · 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
-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공동조사(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
-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
 - ※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
-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



- 지원사업별 신청방법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 (별첨 1)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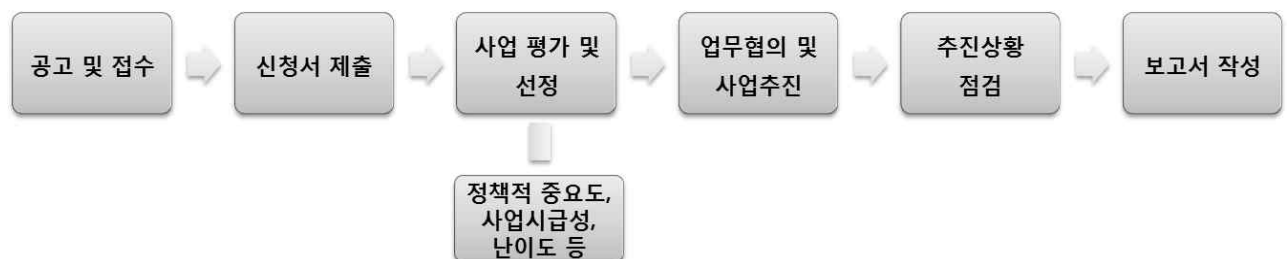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 (별첨 2)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 ※ 담당자 : 김은우 전문연구원(hisgrace@kmi.re.kr), 손보라 연구원(bora62@kmi.re.kr)

- 신청서 평가 및 기타

- 선정기준 :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시급성·난이도, 정책적 중요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지원
- 선정결과 발표 : 신청서 접수 후 2~3주 이내 개별 통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김은우 051-797-4772 / 손보라 051-797-4781)로 문의
 -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 추진절차





별첨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

업체 개요	기업명		업 종	
	대표자		종업원수	
	소재지			
	자본금		매출액 (전년도)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일자	
지원요청 내용	국가/지역			
	관련 사업			
	문의사항			
신청자	부서		Tel	
	직위		Fax	
	성명		E-mail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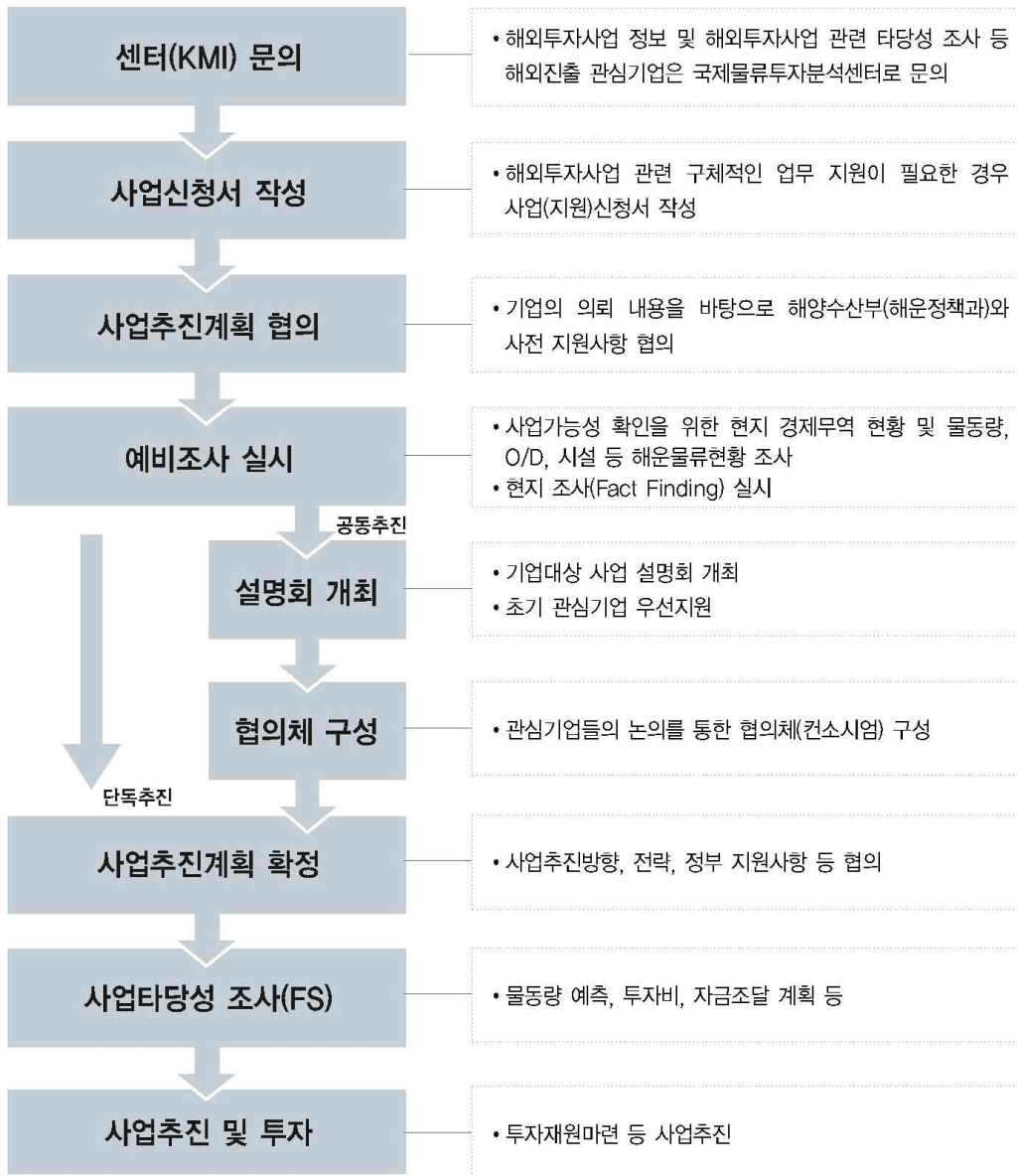
별첨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

업체 개요	기업명		업종	
	대표자		종업원수	
	소재지			
	자본금		매출액 (전년도)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일자	
조사대상 사업개요	사업명			
	국가/지역			
	※ 별첨 자료요청 (신청기업의 평가를 위하여 공동조사 대상 사업 주요내용 을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5~10쪽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업의 목적 · 사업 세부내용 (대상지, 사업 분야, 사업규모, 사업방식 등) · 사업추진계획 · 현지시장 조사계획 · 기타 현안사항			
지원요청 내용	※ 필요시 별첨 자료로 제출가능			
신청자	부서		Tel	
	직위		Fax	
	성명		E-mail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목 록	※ 공동조사 대상사업 주요내용 및 지원요청 내용 별첨자료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